

‘피겨여왕’ 김연아

‘밴쿠버 꿈’ 키운다

2010년 동계올림픽 금 목표

대한빙상연맹 집중 지원키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피겨여왕’으로 유독 선 김연아(16·군포 수리고)의 영광 뒤에는 대한빙상연맹(회장 박성인)과 후원사인 삼성화재의 ‘소리없는’ 뒷받침도 큰 역할을 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2010 밴쿠버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대한체육회와 연맹 차원에서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유망주를 키우는 데 집중해왔다.

빙상연맹은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나이 제한(만 16세 이상)에 걸려 출전권을 얻지 못했던 김연아에 대해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김연아의 미국 전지훈련 비용을 대줬던 빙상연맹은 올해에도 캐나다 전지훈련을 위한 훈련지원금 7천만원을 지급했다.

덕분에 김연아는 올해 캐나다 전지훈련에서 세계적인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의 지도를 받고 한 단계 올라선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을 연마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더불어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초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과 지난 11월 4차 시니어 그랑프리 우승 포상금으로 3천여만원이 김연아에게 돌아갔다. 이번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에 따른 포상금은 현재 논의중이라는 게 연맹측 설명이다.

빙상연맹 뿐 아니라 지난 1997년부터 연맹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재정적 도움도 김연아의 성장에 뒷받침을 했다.

지난 1997년 5월부터 빙상연맹을 후원해온 삼성화재는 9년째 매년 8~1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 연맹의 연간 예산이 25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빙상연맹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국내 동계 종목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맹차원에서 집중지원하고 있다”며 “김연아의 경우 다음 목표인 세계선수권대회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작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피겨요정’ 김연아가 18일(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 팰리스에서 펼쳐진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의 결라쇼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 ‘타이거 트로피’ 탈환

자신이 만든 타깃월드챌린지 대회

작년 패배 씻고 대회 세번째 정상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자신이 차린 잔치인 타깃월드챌린지에서 주인공이 됐다.

우즈는 1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크스 셔우드골프장(파 72·7천97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전날 선두였던 US오픈 챔피언 조프 오길비(호주·12언더파 276타)를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우즈는 135만달러의 상금과 함께 작년 루크 도널드(잉글랜드)에게 빼앗겼던 우승 트로피를 되찾았다.

자신이 설립한 재단이 주최하는 이 대회에서 세번째 우승이자 올 시즌 정규, 비정규

대회를 포함해 11번째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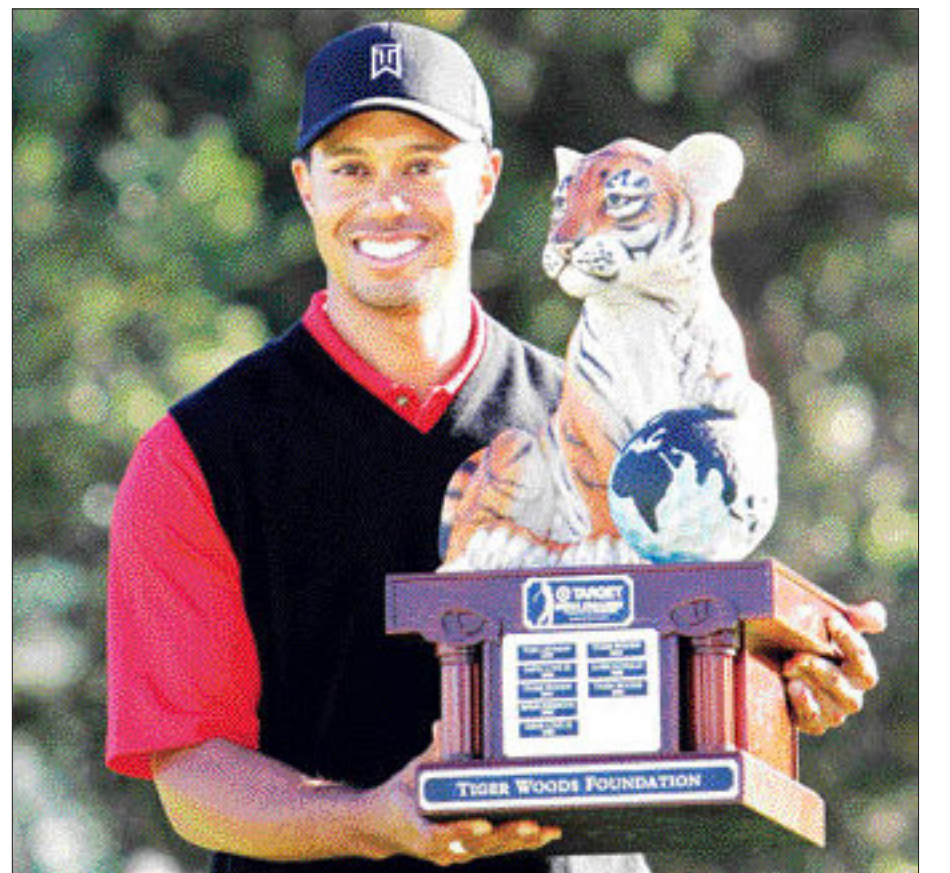
이번 대회 상금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교육센터에 기부된다.

조프 오길비(호주)에 1타 뒤진 채 4라운드를 시작한 우즈는 오길비가 2번홀(파5)에서 보기를 범하는 사이 2번홀과 3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다.

4번홀(파3) 보기로 잠시 추종했던 우즈는 5번홀(파5)에서 버디로 만회한데 이어 7번홀(파4)에서 페이웨이를 놓쳤지만 두번째 샷을 끈 13.7m에 붙인 뒤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다.

9번홀(파4)에서도 우즈는 두번째 샷을 홀 3m 옆에 떨어뜨려 버디를 잡으며 2위 그룹과 타수차를 3타로 벌렸고 10번홀(파4)에서 버디를 보며 선두 자리를 굳혔다.

크리스 디마르코(미국)는 11언더파 277타로 3위, 헨릭 스텐슨(스웨덴)은 9언더파 279타로 4위를 차지했다.



타이거 우즈가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크스 셔우드골프장에서 열린 타깃월드챌린지 대회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언 파워...아시아팀 그린 정복

김영·이선화 3승씩...우승 주역

렉서스컵 대륙대항전 女 골프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휩쓴 ‘코리언 파워’가 아시아 여자골프를 제 2회 렉서스컵 대륙대항전 우승으로 이끌었다.

12명의 선수 가운데 9명의 한국 선수가 포진한 아시아팀은 17일 싱가포르 타나 메라골프장(파72·6천620야드)에서 1대1 매치플레이로 치러진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5승 1무승부 6패로 뒤졌지만 3라운드 승점 합계 12.5점으로 미국과 유럽, 호주

선수로 구성된 인터내셔널팀을 1점차로 제쳤다.

지난해 첫 대회에서 승점 16·8이라는 더블스코어 차이로 참패했던 아시아팀은 설욕과 함께 아시아의 힘을 세계에 과시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은 이날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4승 1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4.5점을 보태는 등 우승의 주역이 됐다.

김영과 이선화는 사흘 내내 승리를 올리면서 승점을 3점씩 따내 우승의 수훈감이 됐다.

아시아팀 선수 12명은 5만달러씩 상금을 받았고 우승컵을 내준 인터내셔널팀 선수들에게는 3만달러씩 돌아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호남대 출신 염기훈(전북) 신인왕

네티즌 선정...MVP 성남 김두현

프로축구 2006 K-리그 그라운드를 빛낸 최우수선수(MVP)와 신인왕이 20일 발표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케이퍼테이너지움에서 ‘2006 삼성 하우젠 K-리그 대상’ 시상식을 열어 최우수선수와 신인선수상 수상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K-리그 14개 전 구단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한 14명(광주 상무는 신인선수상 후보 제외)을 후보로 한 MVP와 신인선수상은 축구담당 기자단 투표(총 71표)에 의해 선정된다. 최우수선수에게는 상금 1천만원, 신인선수에게는 500만원이 수여된다.

MVP로는 성남 일화 FC를 K-리그 통산 7번째 우승으로 이끈 김두현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현은 올해 33경기(갑대회 포함)에 출전해 8골, 4도움을 올렸다.

신인상에는 호남대 출신 염기훈(전북·사진)이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염기훈은 31경기 출전에 7골, 5도움을 올렸다. 한편 네티즌이 직접 뽑은 ‘올해의 MVP’와 ‘신인왕’에서도 김두현과 염기훈이 각각 선정됐다.

국내 축구전문 사이트 사커월드(www.soccer4u.co.kr)는 18일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인터넷 팬 투표에서 김두현이 총 1천995명의 참가자 중 1천287표(64.5%)의 일방적인 지지를 얻어 MVP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신인상 부문에선 전북 현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큰 몫을 했던 호남대 출신 염기훈(23)이 1천388표(69.6%)의 물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명환 금지 약물 복용

국제대회 2년 출전정지

최근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계약한 우완 투수 박명환이 앞으로 2년동안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국제야구연맹(IBAF)은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간) 박명환을 포함한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된 3명의 선수에 대해 국제대회 경기 출장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AP통신이 보도했다.

박명환은 이에 따라 내년 열리는 2008 베이징올림픽 예선 등 국제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박명환은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때 금지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KIA 타이거즈 21일 남회식

KIA 타이거즈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구단 임직원과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구단 남회식을 개최한다.

이날 남회식은 2006시즌 경기 하이라이트 비디오 상영, 대표이사 인사말, 수훈선수 시상식, 서정환 감독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올 한해 KIA를 적극 후원한 비바스포츠투를 비롯해 밝은안과와 한국병원 등 지정병원에 대한 감사대 증정식도 함께 열린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김양배)는 제 1회 ‘올해의 포토제닉’을 선정하고, KIA 선수 24명의 사진을 전시, 기증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